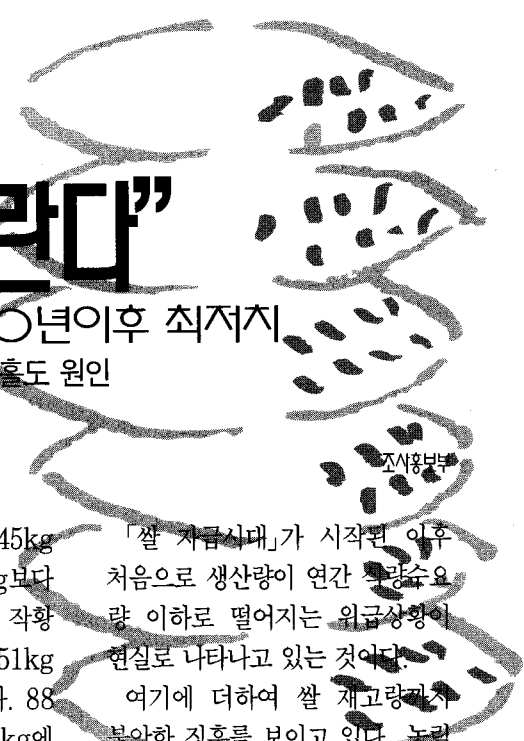


# “쌀이 모자란다”

올 생산량 3,260만섬... 80년 이후 최저치  
재배면적 감소, 병해충방제 소홀도 원인



## 무려 2백74만섬이나 부족

농림수산부는 최근 올해 쌀 생산량을 3천2백60만섬으로 최종 집계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천5백13만섬보다 2백53만섬이 줄어든 것이며 올해 9월15일 작황조사시 예상됐던 3천3백5만섬보다도 45만섬이 적은 것이다.

또 이같은 생산량은 2천4백65만섬을 기록했던 80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이며 냉해가 극심했던 지난 93년의 3천2백97만섬에 비해서도 37만섬이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쌀 증산정책의 지속으로 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했던 지난 88년(4천2백만섬)에 비하면 무려 22.4%, 9백40만섬이 줄어든 규모이다.



10a당 평균수확량도 4백45kg에 불과, 지난해의 4백59kg보다 14kg이나 줄었고 9월15일 작황조사시 예상했던 수확량 4백51kg에 비해서도 6kg이 감소했다. 88년 10a당 평균수확량 4백81kg에 비해서는 36kg이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내년도 총 쌀수요량을 3천5백34만섬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3천2백77만섬은 순수식량이고 가공용 1백만섬, 종자 26만4천섬, 자연감소 1백30만섬 등이다. 따라서 올해 쌀 생산량만으로는 식량수요도 충족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전체 수요량에 비할 경우는 무려 2백74만섬이나 모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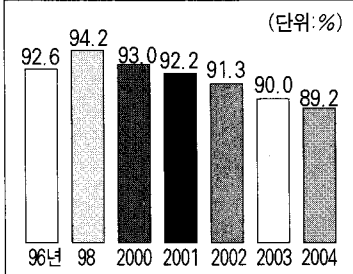
「쌀 자급시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량이 연간 식량수요량 이하로 떨어지는 위급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쌀 재고량과도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양곡년도말 쌀 재고량은 4백72만섬. 이는 당초 농림수산부가 올해 재고량으로 예상했던 5백97만섬보다 1백25만섬 적은 것이며 91년 1천4백87만섬에 이르던 재고량과 비교하면 5년도 채 안돼 1천만섬 이상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2백78만섬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 6백만섬(2개월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내년 양곡년도말에 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작 1개월도 버티지 못할 양이 재고로 남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내 쌀 자급률은 가공용을 포함할 경우 올해 91.4%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도 92.2%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만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재

쌀 자급률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연구위원, (쌀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낙관적전망, 비관적전망, 현실적전망 등 3가지 시나리오중 현실적 전망치임.

고을을 유지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한 의무수입량(44만섬)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 쌀을 수입해야 하는 사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 위험경고 목소리 의외로 높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최근 「쌀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란 논문을 통해 오는 2000년을 기점으로 쌀 재고가 바닥나고 쌀 자급률도 계속 떨어져 2004년에는 84~89%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김위원은 『2004년 쌀 자급률이 89%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벼 재배면적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2만4천ha 줄고 10a당 수확량이 4백90kg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경우 98년의 재고량은 1백6만섬으로 줄고 99년에 가서는 재고가 바닥나 2000년에는 38만섬의 쌀이 부족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위원은 이 기간동안 재

배면적이 연평균 3만1천ha로 모두 31만ha 줄고 10a당 수확량이 4백80kg에 불과하다고 비관적으로 볼 경우 쌀 자급률은 8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이런 전제하에서는 96년 쌀 자급률은 올해 정부가 예측한 것과 같이 92.2%로 떨어지고 98년에 가서는 정부재고가 바닥나는 것은 물론 의무수입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7만섬 정도가 부족하고 2000년에는 의무수입량과는 별도로 5백20만섬을 추가 수입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함께 충북대 성진근 교수도 현재와 같은 재배면적 감소가 계속된다면 97년에는 국내 쌀 재고량마저 바닥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의한 최소시장접근(MMA)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도 2백60만섬 정도를 추가로 수입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는 등 농업관련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쌀 수급과 관련,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논의 타용도 전용 억제와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조화만이 쌀 부족 사태를 막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올해 재배면적 4.2%나 줄어

벼 재배면적은 지난 85년 1백23만7천ha에서 87년 1백26만ha까지 늘었다가 90년 1백24만ha, 91년 1백20만8천ha, 93년 1백13만6천ha 등으로 꾸준한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벼 재배면적은 1백5만6천ha를 기록, 지난해의 1백10만3천ha보다 4.3%인 4만7천ha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10년만에 18만ha가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90년 이후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대비 재배면적 감소율은 90년 1.0%, 93년 1.8%에 불과했으나 94년 2.9%, 올해는 4.2%로 재배면적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른 용도로 농지가 전용돼 재배가능한 논면적이 줄어드는데다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든데는 농민들이 스스로 쌀 생산을 포기한데 원인이 있다. 논에 미수 채소 등 타작물을 심기 때문에 전환한 면적이 3만2천ha, 노동력 부족과 수지타산을 이유로 이에 늘리는 논이 4천ha에 달했다.

### 여론이 편성한 방계 무관심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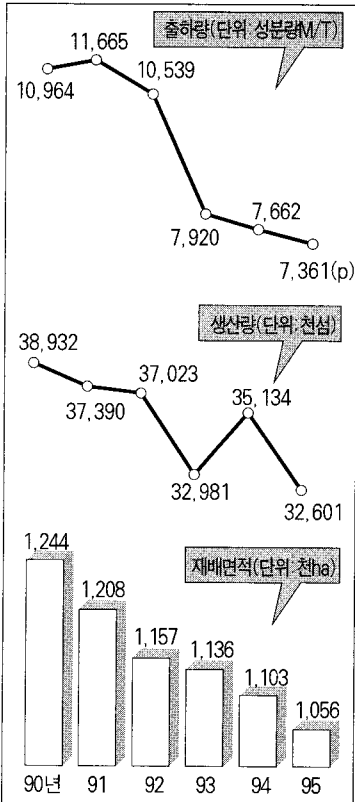
한편 벼 재배면적의 감소와 쌀 생산량의 감소 뿐만 아니라 벼농사용 농약사용량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를 보면 벼농사용 농약의 출하량(성분량)은 91년 1만1천6백톤을 고비로 92년 1만5백톤, 93년 7천9백톤, 94년 7천6백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0.6%, 24.8%, 3.2%의 감소를 나타냈다. 올 10월말 현재의 집계에서도 벼농사용 농약출하량은 7

천3백톤으로 나타나 지난 7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초제를 제외하고 살충제와 살균제는 91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살균제는 91년 3천4백90톤에서 94년 2천5백30톤으로 3년만에 25.4% 감소했고, 살충제는 91년 5천8백60톤에서 94년 2천9백80톤으로 무려 49.1%나 줄어들었다.

다만 제초제는 91년 2천4백10톤, 92년 2천2백30톤, 93년 1천9백20톤으로 감소하다가 94년에 2천1백50톤으로 회복세로 돌아섰

연도별 벼농사용 농약 출하량,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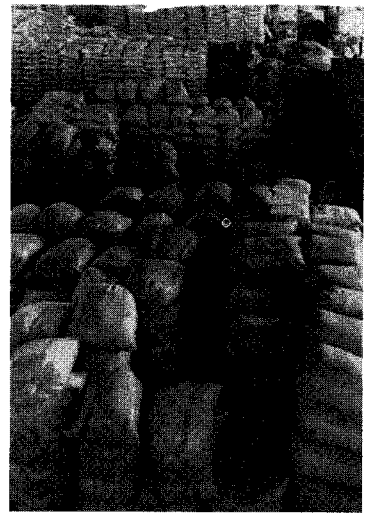


고 금년 출하량도 91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벼농사용 농약의 소비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①93년의 냉해, 94년의 한발등 최근 몇년간 기상여건의 악화로 이렇다할 병해충 발생이 없었고 ②89년부터 91년까지 쌀 자급시대를 맞으면서 다비밀식(多肥密植) 재배로 병해충에 약했던 통일벼 대신에 병해충에 비교적 강한 일반계로 벼 재배 품종이 대체된 것 ③농약 제제기술의 발달로 단위면적당 유효성분 투하량을 줄이면서도 환경에 안전하고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는 약제가 개발공급되고 있는 점 ④농촌일손의 부족, 특히 노동력의 부녀화 및 고령화로 농약살포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 ⑤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를 농민들이 인식하여 가급적 농약살포횟수를 줄이려는 경향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벼농사용 농약의 사용이 줄어든 원인은 경제작물 등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벼농사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성실한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굳이 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가 늘고 있다. 결국 병해충 피해만큼 생산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갈수록 쌀 생산량이 줄고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편성하여 병해충 방



제에 무관심해지고 소홀해진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쌀.. 국민모두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쌀 자급률이 100%를 밑돌기 시작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의 벼 병해충 방제효과는 평균 10%에 이른다. 이는 병해충 방제를 충실히 하면 10%만큼 더 쌀을 증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3년간의 증수효과를 쌀로 나타내면 9천6백94만석(1석=144kg)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조 1천6백37억원에 달한다. 결코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치이다.

쌀 자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제 「강진너 불구경」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며 「발등의 불」이 됐다. UR협상에서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품목의 개방폭을 양보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애써 지킨 쌀시장을 외국에 내맡겨야 할 판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쌀 증산종합대책을 마련 년내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쌀 문제는 생산하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농약정보**